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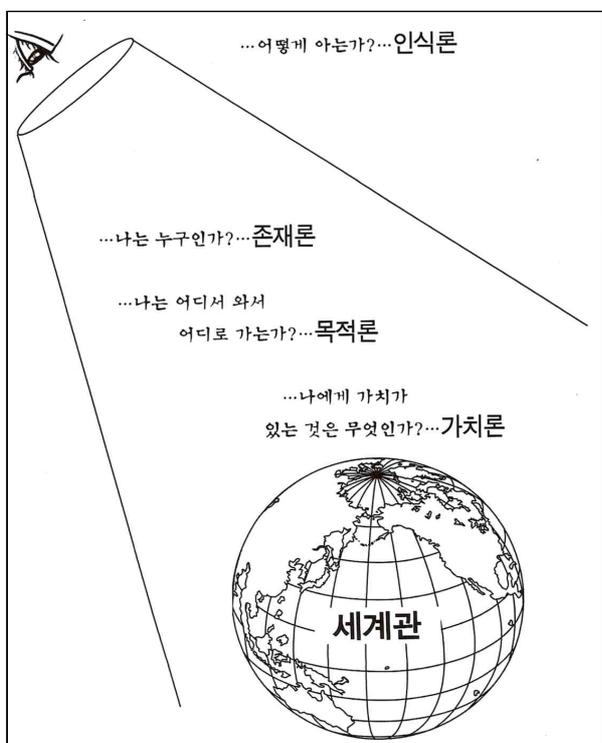
비전스쿨 초점 맞추기

#그림자료: 부르스 탐슨, [내 마음의 벽](예수전도단) 중 <그림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때문에 이 세계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vision을 품을 수 있다. 따라서 vision을 얘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목적,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성경적 인식론으로 존재론과 목적론, 가치론을 정립하여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계를 바르게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조를 맞춰가는 vision을 품도록 발판을 만드는 것이 '홍광 다니엘 비전스쿨'의 목적이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세상의 역사가 무엇에 의해 쓰여 가는지 해석하는 눈이다. 세계관은 존재론(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목적론(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가치론(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부모와 사회, 교사, 친구, 대중매체, 여러 지식과 환경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존재론과 목적론, 가치론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인식론)

앞으로 8주간의 curriculum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주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본 비전스쿨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존재와 목적, 삶의 가치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vision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오늘은 첫째 시간은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 자신의 존재, 목적, 가치에 대한 하는 물음의 답을 갖는 것, 그것을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한다.

10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은 '정체성 확립'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따져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 세계관도 vision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 하는지,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생각은 바른 것인지 점검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왜 겪게 되는지, 성경적인 존재론과 목적론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